

다카이와산 트레킹 코스

이 코스는 운젠다케의 가장 남쪽에 있는 다카이와산 정상(881m)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카이와산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상에서는 시마바라반도 남부와 아리아케카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아마쿠사 제도의 웅장한 광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카이와산은 지역 사람들의 신앙 산이기도 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다양한 도리이는 새로운 것도 있고 세월과 함께 썩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 도리이들은 다카이와산 정상 사당에 모셔져 있는 ‘우케모치노카미(오곡을 관장하는 신)’를 농경의 신으로 받들어 온 시마바라반도 사람들이 세운 것들입니다. 각각의 도리이는 풍작과 상업 번창을 산에 기원한 한 가족, 한 가문, 한 집단을 나타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많은 거대한 용암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20세기 초 운젠에서 휴가를 즐기던 외국인들은 이 경치를 보고 산에 ‘록키힐(바위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상에는 우케모치노카미를 모시는 신사와 된장을 즐겨 먹었다는 전설의 거인 미소고로의 상이 있습니다. 미소고로의 전설은 운젠과 아마쿠사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소고로는 다카이와산 정상에 앉아있는 거인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농민들의 밭일과 어부들의 어업을 도왔다고 합니다.

호바루 진달래동산

다카이와산 자락에는 호바루 진달래동산이 있습니다.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는 운젠의 위대한 자연보물 중 하나로, 5월에는 약 5만 그루가 화려하게 적자색 꽃을 피웁니다. 미야마키리시마(규슈의 진달래꽃)는 가는 잎과 작은 꽃을 가진 진달래로 잎의 크기, 광택, 색채 등에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명 ‘운젠 진달래’라고도 불립니다. 운젠에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진달래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이곳 생태계는 화산 활동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분화로 황폐해져도 곧 자연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연의 재생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풀이 자라고, 관목이 자라고, 그 관목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다른 식물들을 배제하면서 아름다운 진달래가 너무 무성해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